

좋은 교사란?

- 김바울 (로고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 / 2003. 5. 13 -

요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더 이상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교육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 등은 배우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요?

교사는 기독교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직접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지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킬 수 있는 우수한 기독교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의 교사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타락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마땅히 제자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2.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사의 인격은 가르침이며 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인격적 성숙함 없이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교사라도 학생들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지식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참된 스승은 될 수 없습니다.

3. 교사는 배우며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슨은 그의 책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에서 말하기를 "오늘의 성장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 라고 말하며 소유하지 못한 것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려면 교사는 늘 깨어있어야 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가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자립정신을 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책임감과 정직함을 가르쳐야 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질서와 예절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지식공부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가치관과 인격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곁에서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신앙의 선배요 스승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가르칠 교육내용을 먼저 알아야 할뿐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재능이나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가르쳐서는 안 되며, 되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시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따뜻한 인격을 가진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없는 학교가 없고 문제없는 학생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준비된 좋은 교사는 좋은 선한 제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의 중요 구성원인 좋은 교사를 선발하고 교육하여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